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3동 225-1 (053)250-3048~9 <http://www.daegujubo.or.kr>



십자가의 승리 — 성마르코 대성당(이탈리아 베네치아)

† 오늘의 전례

“주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루카 23,35ㄴ-43 참조)

온 우주의 왕께서는 높은 자리를 다투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려 왔다.” 참된 왕은 백성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는 십자가입니다.

제1독서 2사무 5,1-3

제2독서 콜로 1,12-20

복음 루카 23,35ㄴ-43

입당송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은 권능과 신성과 지혜와 힘과 영예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옵니다.
영광과 권능을 영원무궁토록 받으소서.

화답송 ◎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영성체송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예수님의 참 모습

박상용 요한 신부 | 교구 사목국 차장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이나 시기를 마무리 할 때 이르면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을 위해 잘 한 것은 무엇이고 그들에게 남긴 아쉬운 점은 어떤 것인지, 또 더 나은 결과를 남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되짚어 보며 새로운 구상과 결심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작년 대림 1주일부터 오늘까지 전 임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선포하신 ‘신앙의 해’를 마감하는 순간에 와 있습니다. ‘신앙의 해’는 상대주의와 무신론과 같은 신앙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맞서 예수님에 대한 앎을 분명히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명확하고 굳건히 하기 위해 선포하신 해였습니다. 이러한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고 또 그분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어떤 모습의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높은 곳에 우뚝 서서 온 천하가 찌렁찌렁하도록 호령하시는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쏠아지는 박수갈채를 받고 계시는 보기 좋은 예수님입니까?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도 저도 아닌, 십자가에 달려 고통

으로 숨을 헐떡이며 당시 지도자들을 비롯해 다른 죄수에게서조차 조롱당하시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에서 구해주시는 분, 힘겨운 삶을 마냥 즐겁고 아무 고통조차 없는 것으로 바꾸어 주실 분을 기대했던 사람들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이 분이 바로 구세주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아무 저항도, 힘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 분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신 예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오늘 복음에서와는 다른 모습의 예수님을 그리고 찾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복음은 우리가 직시해야 하는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앙의 해’를 마감하며 더욱이 성서주간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웅당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 자체이시며 또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을 성경을 떠나 다른 어떤 곳에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참 모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원하신다면 성경을 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읽어야 할 것입니다. **필독**



신앙의 해 교리 퀴즈(31) _ 마지막 회



‘주님의 기도’의 네 번째 청원인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에서 “양식”이라는 말이 뜻하는 바를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셋으로 요약합니다. 그 첫째는 물질적인 양식이고 둘째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셋째는 무엇일까요?



제29회 성서주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담화문(요약)

삶 속에서 움직이는 하느님의 말씀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2013년 성서주간을 맞이하여 하느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머물기를 바랍니다. 올해 성서주간의 주제 성구인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라는 말씀은 바오로 사도가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 아테네에서 이교도들에게 행한 설교의 한 구절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하느님의 자녀’(사도 17,29 참조)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가르침대로 성경은 우리가 세상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지침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성경인 「성경직해광익」(聖經直解廣益)에서도 성경을 “영혼을 밝히는 빛, 햇불, 영혼을 기르는 양식, 풍성한 잔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박해 속에서도 필사를 통해 신자들에게 널리 퍼진 이 최초의 성경으로부터 힘을 얻어 신앙을 지켜 냈습니다.

만일 우리 신앙이 약하고 메말라 있다면 그것은 영혼의 양식인 성경을 가까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한 신앙을 틈타 사람을 그릇된 길로 이끄는 사이비 종교는 한국 가톨릭교회 신자들에게 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신자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지 않음을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이 믿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는 신앙의 진리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거기서 힘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하느님의 말씀은 단순한 ‘인식 대상’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살아 내야 하는 ‘실천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음으로써 힘을 내고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하느님의 말씀도 몸소 받아들이고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제29회 성서주간이 시작되는 날인 금년 그리스도 왕 대축일은 ‘신앙의 해’를 마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는 이때 우리는 한 해 동안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았는지 돌아봅시다. 그리하여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분 안에 뿌리를 내려 자신을 굳건히 세우고”(콜로 2,7)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수 있도록”(필리 2,16) 말씀을 살아 내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현존하시는 진리의 성령에 힘입어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안에서 더욱 힘차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3년 11월 24일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위원장 **손삼석** 주교



“... 살아가는 데 충분한 모든 재물을 가리킨다. 글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이 낱말은, 그것 없이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을 수 없는, ‘불사불멸의 약’인 생명의 빵, ()을 직접적으로 가리킨다. (가톨릭교회교리서 2837항 참조)

** 이번 회로 신앙의 해 교리 퀴즈를 마감합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을 아는 지식이 차고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작고 겸손하게!

재속 프란치스코회

문화홍보실

가난과 겸손의 덕행을 뛰어나게 닦으신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수도원에 들어가지 않고도 세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생활규범과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세속에 살면서 프란치스코 성인의 정신을 실천하며 세상의 성화를 위해 힘쓰는 신자들의 단체인 재속프란치스코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영성을 따라 살아가는 수도회 가족으로는 작은 형제회, 곤벤투알 프란치스코회와 같은 남자수도회인 '1회'와 클라라회라 불리는 여자수도회인 '2회'가 있으며 재속 신분의 평신도 및 재속사제들로 구성된 재속 프란치스코회와 수도 3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프란치스코 '3회'로 불리어 왔던 재속 프란치스코회는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 새 회칙을 인가하시면서(1978년 인준) 현재의 명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재속 프란치스코회는 전 세계 모든 평신도와 재속 사제들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가정과 사회 안에서 프란치스코 성인의 정신에 따라 살며 이로써 자신을 쇄신하고 사도직 활동에 기여하여 복음을 생활화하도록 이끄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112개국에 432,000명의 회원들이 있으며 한국에는 126개의 형제회와 12,700여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재속 프란치스코회가 배출한 성인들은 헝가리의 성녀 엘리사벳을 비롯해 모두 80여명에 이르며 그레고리오 9세로부터 바오로

6세까지 20여명의 교황과 단테, 미켈란젤로, 라파엘로를 위시한 예술가들과 탐험가 콜럼버스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프란치스코 성인의 영성을 따라 성덕의 길을 걸었습니다.

대구대교구에 위치한 재속 프란치스코 영남지구 형제회는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대구교구에 진출하기 전인 1940년 2월, 대구대교구의 박재수(요한) 신부님께서 단독으로 입회한 후 시작되어 현재 약 800여명이 회원들이 9개의 형제회(대구-5개, 지방-경주, 구미, 포항)와 4개의 준비형제회(삼덕성당, 월성성당, 성김대건성당 포항 죽도성당)를 통해 매월 모임을 갖고 무료급식소, 호스피스 활동, 환경운동의 일환인 EM비누 제작보급 등을 통한 수익금 전액을 교구 내 가난한 이웃과 필요한 곳에 후원하고 있으며 본당 제단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세상 안에서 복음을 살면서 세상에 복음의 가치를 심고자 각자의 자리에서 사도직을 실천하고 있는 재속 프란치스코회는 오늘날 더욱 절실히 요청되는 평신도 사도직의 참모습을 보여 줍니다. **▶**

매년 1월 새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문의: 서혜경 마리아 010-3440-0304

<http://www.ofskorea.org>

겸손한 임금님

옛날 인도에 아주 겸손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체 높은 임금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머리를 잘 숙여온 국민들로부터 깊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하 한사람은 임금의 그런 행동은 권위 없는 행동이라며 말렸습니다.

“폐하! 사람의 신체 중에는 머리가 가장 소중한 것처럼 나라에서는 임금이 가장 귀하옵니다. 그런데도 지체 높으신 폐하께서 아무에게나 머리를 쉽게 숙이시면 신하들이나 백성들은 오히려 불편과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차후에는 이를 삼가 주소서!”

임금은 신하의 이 말에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며칠이 지나서 그 신하를 불러, 미리 준비해둔 고양이 해골과, 말 해골과, 사람의 해골을 건네주며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세 개의 해골을 궁 밖으로 갖고 나가서 팔아 보시오.”

신하는 임금의 명령대로 그것들을 가지고 궁 밖으로 나와 팔기 시작했습니다. 고양이 해골이 맨 처음 팔렸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쥐가 없어진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말 해골이 팔렸습니다. 그것을 문에 매

달아 놓으면 병이 사라진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해골만은 쉽게 팔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하는 마지막 남은 사람의 해골을 팔기 위해 발이 부르트도록 민가를 돌아 다녔지만 아무도 그것에 관심을 기울여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친 사람 취급을 하며 냉대를 했습니다. 결국 신하는 그것을 팔지 못한 채 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으며, 그런 신하를 보고 임금이 웃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 경은 내게 사람의 머리가 제일 소중하다고 하지 않았소? 그런데 지금 보니, 고양이 머리나 말머리보다도 못하지 않소? 대체로 사람의 머리가 귀하다 함은, 그 머리에 간직된 생각이나 마음, 그리고 지식을 말하는 것이지 머리 자체는 아닌 것이오. 이제 그 사실을 알았으면 단순히 권위나 체면만 내세우지 말고 남에게 머리를 많이 숙이시오.”

임금의 충고에 신하가 부끄러워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금주의 성인



성 안드레아 동락(11월 24일)

1533년에 베트남에 그리스도교가 전파되었는데 1625년부터 1886년까지 53차례의 박해령으로 13만명의 신자들이 순교하였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처럼 베트남 사람으로서 최초로 순교의 영광을 받으신 사제인 안드레아 동락 성인께서는 여러 지역에서 선교와 사목활동을 펼치시다가 박해 중에 체포되시어 1839년 12월 21일 베트남의 하노이(Hanoi)에서 참수형을 받고 순교하셨다. 복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에 의해 117명의 동료 순교자들과 함께 시성되었다.



†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11월 26일 화요일은 (故) 이상호 베드로 신부님 2주기입니다.

■ '신앙의 해' 기념 영성사진 콘테스트 당선작 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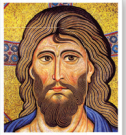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개최된 영성사진 콘테스트 당선작에 대한 전시회가 11월 15일(금)부터 19일(화)까지 교구청 내 한옥(안익사)에서 열렸다.



'신앙의 해' 기념 영성사진 콘테스트 최종 결선 당선작

- 최우수상 : 〈여리지만 강인한 신앙〉 문혜정(파우스티나, 지좌성당)
- 우 수 상 : 〈빛의 신비〉 나영자(리디아, 월성성당)
- 우 수 상 : 〈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된 이 날이 기뻐요〉 백승학(안토니오, 칠곡성당)
- 장 려 상 : 〈눈물〉 이도협(스테파노, 죽도성당)
- 장 려 상 : 〈초심(初心)〉 허준석(안드레아, 봉곡성당)
- 장 려 상 : 〈우리 모두의 기도〉 박춘화(보나, 성당성당)

지금까지 영성사진 콘테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교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수상하신 분들께는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당선작들은 향후 도록으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2012
2013



'신앙의 해' 기념 대구주보 교리퀴즈 안내

연중 제31주일(11월 3일) '신앙의 해' 교리퀴즈® 정답은 〈소리, 묵상, 관상〉입니다.

당첨자 : 최향순(엘리사벳, 범어), 장인숙(데레사, 계산), 윤지애(아녜스, 봉덕),

김미정(말가리다, 인동), 오연옥(수산나, 이동)

보약 많이 드이소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구미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11월 25일(월) 11:00 도량성당		11월 26일(화) 14:00 신암성당
대구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1월 25일(월) 11:00 계산성당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11월 27일(수) 10:00 죽도성당
오순절평화의마을 후원회 미사	11월 25일(월) 11:00 수성성당		11월 27일(수) 14:00 토마스성당
1대리구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11월 26일(화) 14:00 계산성당	바느기도회 18주년 추계 대피정 미사	11월 28일(목) 9:30 삼덕성당
김천지역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11월 27일(수) 10:00 평화성당	대구지역 학교 복음화를 위한 미사	11월 28일(목) 19:00 성모당
김천지역 학교 복음화를 위한 미사	11월 27일(수) 19:30 김천항금성당	대구가톨릭한의사신우회 미사	11월 28일(목) 20:00 교구청 내 병원사목부 사무실

성소 | 피정

젊은이 1박 2일 피정

기간: 11.30(토) 14:00~12.1(일) 14:00
장소: 수지 성심교육관, 회비: 2만 원
주제: 주여, 오소서 우리와함께 머무르소서
대상: 35세 미만 여성, (010)9176-1212
주최: 파티마의성모프란치스코 수녀회

첫 토요일 성모 신심 피정

일시: 12.7(토) 10:00, 다사성당
주제: 성모님과 성탄의 신비
일정: 미사, 면담, 고해성사
특강: 문봉한(야고보) 신부

교육 | 모집

바오로딸 묵주 · 성물 전시회

아름답고 품위있는 묵주와 성물 전시, 보급
기간: 11.26(화)~12.5(목)
장소: 바오로딸 서원(동성로)
문의: 425-5185 / (010)2658-5185

가톨릭 한중(韓中)친선협회 회원 모집

대상: 중국어 초급이상, 50세 이하

내용: 중국어(성경반, 프리토킹반)
중국(문화친선반, 성지순례반 등)
회비: 한달 5천 원(모두 합한금액)
문의: (011)808-8018

15회 대학생 필리핀 해외봉사어학연수

1차: 1.2(목), (8, 12주)
2차: 2.27(목), (8, 12주)
기타: 캐나다, 호주 연계연수 가능
문의: 대구청소년수련원, 593-1273
22회 청소년필리핀영어연수(4주) 모집

빛떼제 성탄 축복의 밤 초대

일시: 12.14(토) 18:00~22:00
장소: 예수성심시녀회수녀원
내용: 음악회, 폐제기도, 축제
회비: 1만 원(송금접수 완료)
문의: (010)9056-9005

수도생활 체험학교(노장년층)

기간: 12.29(일) 16:00~31(화) 13:30
장소: 왜관피정의집, (054)971-0722
대상: 45~75세, 준비물: 세면도구
참가비: 8만 원, 국민)608001-04-116050
예금주: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룩스 연주단 · 중창단 모집

활동: 폐제기도 및 음악봉사
파트: 클래식악기, 피아노, 노래
문의: 예수성심시녀회 성심교육관,
(010)9056-9005

2014년 해외선교사를 위한 교육

20차: 1.20(월)~2.21(금)
대상: 해외파견명령을 받은 선교사
문의: 해외선교사교육협의회,
(02)953-0613

인천교구 실버타운 <마리스텔라>

2014년 3월 입주, 총 264세대 1,000
병상, 인천국제성모병원, 요양원 운
영, 매일 미사, 다양한 신앙 프로그램
문의: (032)569-8500
<http://www.marisstella.or.kr>

PBC 평화방송 겨울영어캠프

필리핀: 12.26~1.23(4주 390만 원)
미국(괌): 1.2~1.29(4주 570만 원)
대상: 초·중·고생, www.pbc.co.kr
문의: 필리핀 (070)7119-6898,
미국(괌) (070)7504-4776

시브마린리조트
170명 연회장(대, 중, 소 연회장 완비)
객실 68개 취사, 복층구조(중, 고 수련회 환영)
해수사우나, 노래방, 스크린골프,
한, 일식당, 커피숍, 편의점 완비
www.submarineresort.co.kr
예약문의 054)293-1200 나중기(요아킴)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입암리 549-1

전통한복의 명가 대한민국 한복명장
이명자 한복방
· 혼수/예단/수의 · 한산모시 전문점
중구 반월당 삼정그린코아 상가 115호
☎ (053)421-2827/421-2828
이명자(세리리아), 강윤정(아레스)

소변에 거품이 나십니까?
수연내과
[부설 : 인공신장실]
경북대병원 외래교수 김 건 현(라파엘)
상인역 ☎ (053)642-7575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플 때
척추와 어깨 · 무릎을 치료하는
12 명의 의료진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훈(요한)
T. 630-8000 지하철 1호선
송원역 2번 출구

밝은눈안과
원장/전문의 임홍식(라파엘) 장주희(헬레나)
초음파백내장/라섹수술
수술 전문 병원
달성고 맞은편 654-9660
지하철2호선 두류역(9번출구)앞

스피치 토크의 가장 개념센터
Speech Kim
스피치킴 교육
리더십&발표력&자신감
스피치킴의 특별한 전략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프리젠테이션, 입시 · 취업 면접, 화술 · 화법
대상: 유치부~성인
스피치킴 교육 본원(대백 프라자 옆) T.053)421-0213
NAVER 스피치킴 교육 검색 김민지(사바나)

예수님과 바오로사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스라엘, 터키) - 14일
출발일: 2014년 1월 11일
순례경비 4,500,000원
T. (053)253-3399
www.sungjitour.com
☎ (주)생파여행 조열래(유스티노)

분도는 한 방울의 기름도 속이지 않습니다!
분도석유
전화 한통하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 080-421-5151(무료전화)
424-2240, 743-1977, 957-9543
대표 김현철(베네딕도)

2014학년도

베드로관(小신학교) 지원자 모집

고등학교 전(全)과정을 담당사제와 함께 기숙사 공동체 생활 학습은 무학고등학교 재학 (경북 하양 소재)
대상: 사제성소를 희망하는 중3 남학생
문의: 베드로관, 854-2085
교구 성소담당, 250-3071

행사 | 모임

제9차 성경 통독 피정

기간: 11.30(토) 13:30~12.1(일) 16:00
장소: 베네딕도 영성관, 회비: 5만 원
문의: 사목국 성서사도직, 250-3082
<http://cafe.daum.net/biap대구508-10-448845-1>, 성서사도직

원동수 신부 그림 전시회

'가난한 이웃의 따뜻한 겨울을 위하여' 신암본당 세번째 자선 바자회
기간: 11.24(일)~12.1(일), 신암성당
다음카페: 갤러리 빛과 색
(혹시 화환 주실려면 자선금으로 대신!)

교육 | 모임

관덕정 주관 12월 영성특강

일시: 12.7(토) 16:00
강사: 김찬선(레오나르도) 신부
문의: 관덕정, 254-0151

2014년 주교좌제산성당 대림특강

기간: 12.5(목)~6(금) 저녁미사 후 대성전
주제: 꿈을 지고 파르라(십자가의 꿈)
강사: 이상재(가스톨) 신부
일시: 12.11(수) 저녁미사 후 대성전
주제: 주님, 감사드립니다.
강사: 두봉(레나도) 주교

빛 미용인회 모임

일시: 11.25(월) 20:30, 상인성당
문의: (010)8397-9783

중독 전문상담자원 봉사자 모집

모집기간: 11.25(월)~12.6(금)
대상: 상담유경험자-심리, 복지분야
내용: 문제음주자 및 가족 상담
문의: 대구가톨릭알코올상담센터
638-3778 / 638-8778

12월 영어성경공부반 모집

개강: 12.3(화), 월 3만 원
저녁: 창세기, 사도행전(화, 목 19:00)
낮반: 창세기, 마태오(화, 금 10:30)
문의: 가톨릭근로자회관, 253-1313

사회교리 주간 행사

일시: 12.9(월) 19:00 이희아 연주회
12.10(화) 19:30 신앙을 새롭게
12.11(수) 19:30 만들레 국수집 이야기
장소: 평리성당
문의: 정의평화위원회, (010)4530-7367

프란치스카눔 음악강좌 모집

그레고리안성가(박대중 신부): 12.8(일)
가곡교실: 12.3(화) 14:30

성가발성법: 12.7(토) 18:00
(지도교수: 김남수 그레고리오)
문의: (070)4266-0047

대안교육 산자연학교 입학설명회

일시: 12.14(토) 14:00
대상: 초·중(인가형)고등학생 학부모
문의: (054)337-0530 / 338-0530

채용 | 안내

압량본당 사무직원 채용

문의: 817-5885~6

푸른평화 매장판매직 채용

친환경먹거리 매장판매, 가택배송
주부선호, 스틱운전가능자
장소: 고산역 5분거리(고산성당근처)
문의: 794-4021 / (010)5891-3339

교구법원 공시(253-9550)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이상훈(루치오)

성탄위문품 신청

군중후원회에서 성탄절을 맞아 군 위문품을 보낼 예정이오니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마감: 11.27(수), 접수: 본당사무실
대상: 신자자녀 현역사병(의경, 전경포함)
훈련병, 교육병, 부사관, 장교 제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입양전문) 입양·미혼모 상담

문의: (02)764-4741~3
<http://www.holyfec.or.kr>

세란아동발달상담센터
보건복지부 공식 바우처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대상
발달지연, 학습부진, 난독증, 아동우울증
인터넷(개인)중독, 사회성부족, 틱장애
각각통합장애, ADHD, 언어발달지체
발음장애, 말더듬 등

원장 : 김형우(F,하비메르) ☎ 053)767-5227
www.seran.or.kr

무료상담, 서비스 비용 중 매월 10~22만원까지 국비지원 가능

미소인치과

원장 이종현(프란치스코) 숭선회(안나)

지하철 범여역 4번 출구

전화상담 053)752-7575 화·목
www.misoindental.com 하간진료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병원

안심내과

<30년 전통의 (구)이상계 내과>
내과 전문의 6인 진료 765-3771

심장·순환기, 소화기·내시경 전문
공단검진, 5대암검진, 각종 종합검진
이상계(바오로), 김영섭(베드로), 김지영(대건안드레아)
들안길 네거리 ~ 황금성당 사이

팡팡스크린골프존

이 남 희 (세례자요한)
T.(053)571-6611~2

355명당 1명, 학교, 사부초등학교, 달성중학교, 세일고등학교, 팡팡스쿨, 대인초등학교, 로잔사거리, 새마을시장

· 동시주차 60대가능(1,000여 대차) · 스크린 9종 · 실내연습장 7식 완비

백두정형외과
의학박사/원장 배상근 (베드로)
소아청소년과
허리통증 전문관절
의학박사/원장 배상영 (미카엘라)

관절경 수술전문 (어깨 무릎 발목)

동인 치안센터 건너편 (구) 백두정 정형외과 T.053)425-5919

우리 아이 첫보약은 원방한의원에서

원방한의원

前 대구가톨릭대 교수
現 경북의대 가정의학과 외래교수
의학박사(전문의) · 한의사 : 이정현(요셉)

☎ 431-7100 달서구 월성푸르지오 옆
원더풀스파랜드 3층

곽앤신 이비인후과

진료과목 - 성형외과 · 소아청소년과

의학박사/원장 신재훈(루카), 곽동석(아우구스티노)
코수술 전문병원 (축농증, 비염, 코골이, 코성형)
(1호선 성당역 3번 출구)
☎ (053)638-7582(치료빨리)
<http://www.ksnose.com>

30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나노기술 · 디지털보청기 전문
053)257-8500 / 253-7476
방 프란치스코
중앙네거리~만경당 사이 지하도 입구